(가 안)

95년도 제11대 총여학생회 총노선

총적 기치

"8천이 자주적 여성으로 진정한 남여평등을 위해 공동체 삶을 실천하며
간부다운 간부, 일대 혁신으로
2만과 함께 자주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자."

1. 사상적 노선

1)8천의 공동체적 삶속에서 진정한 자주적 여성상, 남여평등의 상을 밝히고 구현하자.

1〉 자주적 여성은 자신이 여성임을 자각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올곧게 이해하며 제반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집단속에서 조직적이고 적극적이며 주체적으로 풀어나가는 여성이다.
바로 식민지 조국의 여성으로서 안게 되는 모순을 바로보며 제국주의의 문화와 자본주의의 잡사상인 사대문화,이기주의, 개인주의, 소비 향락주의등 을 척결하고 사회속에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다.

2〉 진정한 남여평등은 여성이 평등하게 살 수있는 법, 제도의 보장뿐만이 아니라 이에 기반하여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흔히들 남여평등이 단순히 가사 노동의 동등한 분배,사회 생활의 참여로만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자주적 여성,민주적 남성의 상은 아닐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남성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대접받고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 참다운 인간해방일 것이다.

3>공동체적 삶을 살아가자.

여학우들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흔히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여학우의 본질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 민족의 특성이고 사람의 속성을 올곧게 구현하는 일은 바로 나 혼자서가 아닌 우리의 삶일 것이다. 보통 어머니의 삶을 우리는 이야기한다. 어머니다운 품성,어머니의 사랑. 그러나 인내과 자신만의 희생이 아닌 우리여학우는 바로 끈질긴 생명력과 사람의 소중함과 책임을 알고 있다. 바로 여학간부는 이러한 여학우들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여 학우들의 본성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다.

-실현 원칙과 방도

1>일상대중사업속에서 이를 일상적으로 결합한다.

여학단위는 일년 사업이 끝난후에 평가속에서 일년을 관통한 중요 흐름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는 여학사업의 방대한 내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더 총노선은 총노선으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바로 일성사업과 의식화 사업의 분리속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극복하는 것이다. 일상사업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풀어내야한다.

2>선전에서 논리성 강화와 다양하고 세련된 형식을 창출한다.

여학간부의 고민이 학술제, 기획자보, 아니면 커다란 대중행사속에서만이 고민이 되는 데 이를 극복하고 비록 적은 수의 학우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우리의 기반은 여학우,
철저히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자.

1>구체적인 대중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만남을 만들어가자.

여학간부의 자기 대중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는 학우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내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총여나 단여의 기반을 만들지 못하고 허공에 붕뜬 조직, 종이 호랑이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우를 만나더라도 약간의 편향이 나타납니다. 학우의 생활을 이해한다며 요즘 유행하는 옷차림이나 이야기하다가 오는 경우, 아니면 우리의 사업을 함께 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우리의 이야기만 하고 오는 경우.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고 학우의 구체적 생활을 이해하고 의식흐름을 명확히 파악하며 끊임없는 의식화 작업을 펼쳐야 될 것이다.

-실현방도

-일주일에 하루 학우 만나기 (사업 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자기 대중 갖기

2>학우들의 의식흐름을 일상적으로 조사

그동안에는 어떠한 사업이 제기 되었을 때에만 설문지를 통해 학우들을 이해해왔다. 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으로 학우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보다 다양한 방법이 요구된다.

-실현방도

-정기적인 의견 개진운동

2. 조직적 노선

1)학우속에서 녹아나고 자신의 지위역할을 틀어쥐는 간부다운 간부

간부혁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간부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다.

간부혁신의 과제

1>사상혁신

모든것이 사상의 문제로 귀결되는 만큼 보다 중요하다. 사람이 어떠한 사상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양식이 달라진다. 진정한 간부다운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상의 혁신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잡사상 퇴치, 자유주의 주관주의 개인주의를 극복하자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의 잡사상에 노출되어 20여년을 살아왔다. 그러하기에 자신에게 알게모르게 침투해있는 이러한 잡사상을 퇴치하는 데 자자신의 노력뿐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것이다.

~개인의 생활을 조직에 앞세우지 말자.

우리는 여학간부이고 여학운동을 주도해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에 개인 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며 자신의 생활이 곧 조직의 모습임을 자각하고 진정으로 집단속에서 살아갈때만이 자신의 생활도 보람있는 생활임을 자각하자.

2>품성의 혁신

~동지애를 구현하자.

~5품성(솔직, 소박, 성실, 용감, 검소)을 구현하자.

3>생활의 혁신

~계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청산하자.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자.

4>대중관의 혁신
~학우의.
학우에 의한,
학우를 위한 간부

2)여학 단위 핵심일꾼을 발굴 육성하자.

여학생회의 어려움은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이다. 그러나 어디에 준비된 사람이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고질적 병폐를 치유하는 방법은 딱 하나.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1>1간부 1단여 갖기. 1간부 새끼치기
한 간부가 자기의 직접적인 대중을 갖고 한사람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속에서 바로 다음 세대가 나오는게 아닐까?

2>내가 바로 핵심이다. 간부 스스로 핵심이 되기 위한 노력
흔히 한 단위의 핵심이라면 회장 부회장을 꼽는다. 그러나 핵심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생활, 실천이라 본다. 내가 바로 핵심이며 우리 단위의 모범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간부들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3)소모임 과여부 강화로 조직적 기반을 튼튼히!!

1>소모임
소모임은 여학생운동에 선봉부대로 여학운동의 내용을 풍부화 시키며 튼튼한 일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각 단위에서 소모임에 정형을 이제서야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어떤 단위에서는 소모임에 중요성을 많이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소모임의 형식이 너무 다양하여 이를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제 소모임에 대한 통일적 인식과 구체적인 내용, 조직화 작업이 되어야 겠다.

-실천과제: 1 소모임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
2 소모임장들의 모임
3 과나 단대의 소모임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

2>과여부
과여부의 중요성은 더이상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간부들이 인식하고 있다. 과여부는 바로 여학생회가 과학우와 함께하는데 손과 발일 것이다. 바로 머리와 몸 팔과 다리가 하나로 이어졌을 때만이 진정으로 8천 여학우의 삶을 책임진다 하겠다. 즉 팔고 다리 과여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허리인 단대 여학생회에서 여부에 대한 지도사업이 더

1〉통일

민족사적 역사적 차원의 정신대 문제 해결로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자. 정신대 할머니의 문제가 우리 민족의 아픔임을 정신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촉구하지 않은 세력은 반통일 세력임을 천명한다.

여학우들의 삶속에 통일의 상이 구체적으로 다가갈수 있도록 하자. 이제 통일은 더이상 관념적인 구호가 아니며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다. 통일조국이 되었을때 우리 여학우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겠는가 학우들과 함께 상을 그려보자.

2〉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선거, 우리 여학생들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겠는가? 이 지역의 현안 문제와 올바른 여성정책을 학우와 함께 공감해가며 이 지역의 민주주의에 앞장을 선다. 이제 더이상 선거때만되면 여성이 표밭으로 되는 진정으로 정치에서 주인으로 나설수 있게 하자.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제출)

3)원칙과 방도:

1.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식화 작업을 하자.**
2. **논리적이고 다양하고 세련된 선전을 하자.**
3. **작은 투쟁일지라도 학우가 직접 참여하는 투쟁을 일구자,**

3. 대중로

① 진정한 여학생회 대중사업의 정형을 창출하자,
② 통일·지자체 시대의 주인으로 —
여학우들